

철학 읽기 방법

수능 지문에서 철학 지문 이해하는 방법

차례

제1장: 철학·윤리·미학 지문 — 공간과 시간으로 읽는다	5
왜 철학·윤리·미학 지문이 어려운가?	5
공간 구조 — 경계와 안/밖의 논리 (벤다이어그램)	5
핵심 원리	5
수능 철학 지문의 핵심 이항대립 쌍	5
벤다이어그램 표 읽기 훈련	6
공간 구조 독해 실전 적용 순서	7
시간 구조 — 선후 관계와 동시 발생	8
핵심 원리	8
시간 구조가 핵심인 철학 유형	8
시간 구조 표 — 인식론의 선후 문제	8
시간 구조 표 — 헤겔 변증법	8
선후 vs. 동시 발생 구분 표	9
공간 + 시간의 결합 — 가장 복잡한 지문 유형	9
공간과 시간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	9
수능 기출 지문 구조 정리	10
핵심 철학 개념어 — 공간·시간 구조 정리표	10
서양 철학 핵심 대립쌍	10
동양 철학 핵심 대립쌍	10
윤리학 핵심 대립쌍	11
미학 지문 심화 — 공간·시간 구조 적용	11
미학의 핵심 질문과 공간 구조	11
미학의 시간 구조 — 창작·작품·감상의 선후	12
실전 적용 — 지문 독해 체크리스트	12
지문읽기연습_아도르노 미학 지문	13
5.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
6.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
7.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
지문해설_아도르노 미학 지문	15
STEP 1. 사상이 레이블링	15
STEP 2. 공간 구조 — 경계의 안/밖	15
① 예술 가치의 위치	15
② 동일성 vs. 비동일성 — 이 지문의 핵심 이항대립	16
③ 아도르노의 예술 경계 — 극도의 축소	16
STEP 3. 시간 구조 — 창작·작품·감상의 선후	16
① 미학 이론별 강조 시점	16
② 저항의 방식에서 드러나는 시간 구조	17
STEP 4. ㉠·㉡ 핵심 문장 구조 분석	17
㉠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17
㉡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17

STEP 5. 수능 선지 함정 예측	17
문제 풀이 및 해설	19
5번 ①	19
6번 ⑤	19
7번 ⑤	19
지문읽기연습_육가의 사상과 세종과 편찬자들의 사상 지문	20
4. (가)와 (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두 글을 비교하며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1
5. (가),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1
6.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1
7. 윗글에서 ‘육가’와 ‘집현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 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1
8. 보기는 동양 역사가들의 견해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2
지문해설_육가의 사상과 세종과 편찬자들의 사상 지문	23
STEP 1. 사상가/화제 레이블링	23
STEP 2. 공간 구조 — 경계의 안/밖	23
① (가) 핵심 대립: 힘의 지배 vs. 인의(仁義)의 지배	23
② (가) 핵심 개념 3개의 공간 관계	24
③ (나) 핵심 대립: 고려 vs. 조선	24
④ (가)와 (나)의 공통 공간 구조	24
STEP 3. 시간 구조 — 선후 관계	25
① (가) 시간 흐름	25
② (나) 시간 흐름	25
③ (가)·(나) 공통 시간 논리	25
STEP 4. 수능 선지 함정 예측	26
문제 풀이 및 해설	27
4번 ①	27
5번 ③	27
6번 ④	27
7번 ① ㄱ만 정답	28
8번 ②	28
지문읽기연습_헤겔의 미학과 비판	29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0
5. (가)에서 알 수 있는 헤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0
6. (가)에 따라 직관·표상·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0
7.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과 ㉡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은?	30
8.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30
지문해설_헤겔의 미학과 비판	32
STEP 1. 사상가/화제 레이블링	32
STEP 2. 공간 구조 — 경계의 안/밖	32
① 절대정신의 세 형태 — 지성 형식과 대응 관계	32
② (나)의 비판 — 진정한 종합인가?	32
③ ㉠과 ㉡의 공간·시간 구조 대응	33
STEP 3. 시간 구조 — 선후 관계	33

① 헤겔이 설계한 시간 구조	33
② (나)가 제안하는 수정된 시간 구조	33
STEP 4. 핵심 대립 총정리	34
STEP 5. 수능 선지 함정 예측	34
문제 풀이 및 해설	35
4번 ①	35
5번 ③	35
6번 ④	35
7번 ③	36
8번 ②	36

제1장: 철학·윤리·미학 지문 — 공간과 시간으로 읽는다

“**핵심 명제:** 미학, 윤리학, 철학 지문은 결국 두 가지 구조의 조합이다.” “**공간 구조** = 경계를 세우고, 안과 밖을 가른다.” “**시간 구조** = 선후를 정하고, 무엇이 먼저이며 무엇이 동시에 일어나는가를 본다.” “이 두 도구만 있으면, 어떤 철학 지문이라도 뼈대를 추출할 수 있다.”

왜 철학·윤리·미학 지문이 어려운가?

수능 인문 지문 중 철학·윤리·미학 계열은 **킬러 지문의 단골 소재**다. 2019학년도 **_가능세계_**, 2022학년도 **_헤겔 변증법_**, 2025학년도 **_에이어·헝크스의 도덕 문장 진리론_**이 그 예다.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두 가지다.

1. **낯선 용어:** ‘정립-반정립-종합’, ‘물자체’, ‘가능세계’, ‘정서주의’처럼 생소한 개념어가 쏟아진다.
2. **꼬인 논리 전개:** 용어를 알더라도 그 개념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파악이 안 되면 문제를 풀 수 없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용어를 외우려 하지 말고, 그 용어들이 **공간적으로 어느 편인지, 시간적으로 어느 위치인지**만 파악하면 된다.

공간 구조 — 경계와 안/밖의 논리 (벤다이어그램)

핵심 원리

철학 지문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구조는 “**A냐, B냐**”의 대립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경계를 어디에 긋는가**의 문제다.

- 경계 **안**에 무엇을 포함시키는가?
- 경계 **밖**에 무엇을 배제하는가?
- 두 집합은 **교집합**이 있는가, **완전히 분리**되는가?

이를 파악하면, 겉보기에 복잡한 철학 논쟁도 단순한 공간 구조로 정리된다.

수능 철학 지문의 핵심 이항대립 쌍

아래 표의 각 행은 모두 “**경계를 어디에 긋느냐**”를 달리하는 대립이다.

구분	A 입장 (경계 안 = 전부)	B 입장 (경계 밖 = 실재)	수능 출제 예시
존재론	관념론 — 세계는 정신·의식 안에서만 구성	실재론 — 주관 바깥에 세계가 독립 존재	실재론과 반실재론 (2014)
인식론	경험론 — 인식은 경험(감각) 안에서만	합리론 — 이성(선천적 원리)이 경계 밖에서 선행	칸트 인식론(반복 출제)
심신론	일원론 — 정신과 신체는 하나의 경계 내 동일 실체	이원론 — 정신과 신체는 서로 다른 경계에 별개 실체	이원론과 동일론(2024 수능)
윤리학	정서주의 — 도덕 판단은 경계 안 감정 표현에 불과	도덕 실재론 — 도덕적 사실이 경계 밖 객관세계에 존재	도덕 실재론과 정서주의 (2015) / 에이어(2025)
미학	내재론(형식주의) — 예술 가치는 작품 경계 안에 내재	외재론(표현·제도론) — 예술 가치는 작품 밖 맥락에서 결정	미학과 예술의 조건(2023 6평) / 아도르노(2026 수능)

벤다이어그램 표 읽기 훈련

[예시 1] 실재론 vs. 관념론

항목	실재론	관념론
경계의 기준	인식 주관 밖에 세계가 독립 실재	인식 주관 안에서 세계가 구성
세계의 위치	경계 바깥 (외부)	경계 안 (내부)
얹의 방식	외부 세계를 포착·반영	주관이 세계를 구성·창출
교집합 여부	주관과 객관은 분리된 별개 집합	주관이 객관을 포함(흡수)
수능 함정	“독립적 실재”를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과 혼동 주의	“관념론 = 현실 부정”으로 단순화 금지

[예시 2] 이원론 vs. 일원론 (심신 문제)

항목	이원론 (데카르트)	일원론
집합 구조	정신 집합 \cap 신체 집합 = 공집합 (교집합 없음)	정신과 신체는 동일 집합의 두 속성
경계 개수	2개의 독립된 경계	1개의 경계 안에 둘 다 포함
철학적 문제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는가? (심신 문제)	어느 실체가 근본인가? (유물론 vs. 유심론)
대표 사상가	데카르트 (정신-신체 이원론)	스피노자 (신=자연 일원론), 동양 기일원론
수능 출제 포인트	두 실체가 _왜 서로 다른 집합_인지 근거 파악	두 속성이 _어느 집합에 속하는지_ 파악

[예시 3] 미학 — 내재론 vs. 외재론

항목	내재론 (형식주의)	외재론 (제도론·표현론)
예술 가치의 위치	작품 경계 안 (형식, 구조)	작품 경계 밖 (작가 의도, 사회 맥락, 예술계 제도)
경계 설정 방식	작품 자체가 완결된 집합	작품 + 외부 맥락 = 합집합 필요
감상 방식	텍스트만 보라 (신비평과 연결)	배경·의도·제도까지 봐야 한다
수능 출제 포인트	“이 비평가는 작품의 무엇을 근거로 삼는가?”	“이 비평가는 작품 밖의 무엇을 근거로 삼는가?”

공간 구조 독해 실전 적용 순서

지문에서 공간 구조를 파악하는 4단계 프로세스:

단계	질문	표시 방법
1단계	지문에서 핵심 사상가/이론 몇 개가 나오는가?	A, B, C로 레이블링
2단계	각자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 (안/밖을 가르는 기준)	○ 경계, × 경계 외로 구분
3단계	교집합이 있는가? 없는가? (완전 대립 vs. 부분 공유)	겹침 여부 표시
4단계	그 차이가 왜 생기는가? (근거·전제가 다른 지점)	근거 밑줄

시간 구조 — 선후 관계와 동시 발생

핵심 원리

철학 지문의 또 다른 축은 **시간**이다. 특히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 **선후 관계**: A가 B보다 먼저인가? B가 A를 전제하는가?
- **동시 발생**: A와 B는 동시에 일어나는가? 상호 의존적인가?

시간 구조가 핵심인 철학 유형

유형	시간 구조	대표 기출
인식론의 선행/후행 문제	경험 이전에 선천적 원리가 있는가 vs. 경험 이후에야 지식이 생기는가	칸트 선행적 관념론
변증법	정립(A) → 반정립(non-A) → 종합(A+B): 순서가 있는 시간 전개	헤겔 변증법(2022 수능)
인과론	원인 → 결과의 선후가 있는가, 아니면 동시 결합인가	새먼의 과정 이론(2023 수능)
목적론 vs. 기계론	목적(미래)이 현재를 설명 vs. 원인(과거)이 현재를 설 명	아리스토텔레스 목적론 (2018 수능)
가능세계 론	현실 세계(t=0)와 가능 세계(t=가상)의 시간적 선후 및 동시 존재	가능세계(2019 수능)

시간 구조 표 — 인식론의 선후 문제

“경험이 먼저냐, 이성이 먼저냐”

항목	합리론 (이성 선행)	경험론 (경험 선행)	칸트 (종합)
시간적 순 서	이성·선천 원리 → 경험	경험 → 이성·지식	선천 형식 + 경험 내용 → 인식 동시 작동
지식의 출처	태어날 때부터 (생득 관 념)	태어난 후 경험을 통해	둘 다 필요 (백지 아니되, 경험 없인 공허)
대표 사상 가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로크, 흄, 버클리	칸트
수능 문제 포인트	“선행적 원리는 _경험 이 전에_ 존재하는가?”	“관념은 _경험 이후에만_ 생기는가?”	“선천 형식과 후천 내용의 _동시_ 작동”

시간 구조 표 — 헤겔 변증법

2022학년도 수능 킬러 지문 구조 분석

시간 단계	내용	공간 구조와의 연결
정립 (Thesis)	A라는 명제, 현실의 한 상태	집합 A 형성
반정립 (Antithesis)	A에 대립하는 non-A	집합 A와 분리된 집합 B
종합 (Synthesis)	A와 B의 통일, 더 높은 차원	집합 A∪B를 포함하는 상위 집합 C
핵심	종합은 A와 B를 _폐기_하지 않고 _지양(止揚)_ 한다	C는 A, B를 포함하되 초과함
수능 포인트	“지양”이 단순 폐기가 아님을 이해하는가?	$C \supset A, C \supset B$ 이되 $C \neq A+B$

선후 vs. 동시 발생 구분 표

구분	선후 관계 예시	동시 발생 예시
인과	원인 → 결과 (시간 차 있음)	상관관계 (동시 발생, 인과 불명)
인식	경험 후 개념 형성	선천 형식 + 경험 내용 동시 작동
윤리	결과가 생긴 후 도덕 판단	행위와 도덕 의무 동시 존재
미학	창작 후 감상	형식과 내용 동시 구현
수능 함정	“A가 B를 낳는다” ≠ “A와 B는 동시”	“A와 B가 동시” ≠ “A가 B의 원인”

공간 + 시간의 결합 — 가장 복잡한 지문 유형

공간과 시간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

최고난도 철학 지문은 공간 구조(경계)와 시간 구조(선후)가 동시에 얽혀 있다.

지문 유형	공간 구조	시간 구조	통합 포인트
칸트 인식론	현상계(안) vs. 물자체(밖)	경험 이전(선험) vs. 경험 이후(후험)	현상계=선험 형식+후험 경험 / 물자체=시간 밖
헤겔 변증법	정립(A)∩반정립(B)=공 집합 → 종합(C)=A∪B	정립→반정립→종합의 시간 순서	공간(집합 포함관계)이 시간(순서)을 따라 변화
가능세계론	현실세계(집합 W_0) vs. 가능세계(집합 W_n)	W_0 과 W_n 은 시간적 선후 없이 동시 존재	시간 밖에서 경계로만 구분됨
인과론	원인(집합 C) → 결과(집합 E): 교집합 방식	C가 E에 시간적으로 선행	교집합이 _얼마나_ 전달되는가_가 인과의 강도

수능 기출 지문 구조 정리

[예시] 2022학년도 수능 — 이원론과 동일론

구분	이원론	동일론 (타입 동일론)	개별자 동일론
경계 구조	정신 집합 / 신체 집합 = 완전 분리	정신 유형 집합 = 신체 유형 집합	정신 개별자 집합 = 신체 개별자 집합
시간 구조	어느 것이 먼저인가 논쟁 (심신 상호작용 문제)	유형 수준에서 동시 동일	개별 사례 수준에서 동시 동일
교집합	없음 (=공집합)	완전 일치	토론 수준 일치

핵심 철학 개념어 — 공간·시간 구조 정리표

서양 철학 핵심 대립쌍

개념 A	개념 B	공간 관계	시간 관계
현상(Phenomenon)	물자체(Noumenon)	경계 안 / 경계 밖	경험 시간 내 / 경험 시간 외
선험적(A priori)	후험적(A posteriori)	이성 내부 / 경험 이후	경험 이전 / 경험 이후
실체(Substance)	속성(Attribute)	포함하는 집합 / 집합 내 원소	동시 존재
보편자(Universal)	개별자(Particular)	큰 집합 / 작은 집합	논리적 선행 / 실존적 선행
형식(Form)	질료(Matter)	경계 자체 / 경계 안의 내용	형식이 질료에 선행 (아리스토텔레스)

동양 철학 핵심 대립쌍

개념 A	개념 B	공간 관계	시간 관계	대표 사상가
理(리)	氣(기)	리 ⊃ 기 or 리 = 기 (논쟁)	리가 기에 선행하는가?	주희(이기이원) vs. 이항·이이
天(천)	人(인)	천 ⊃ 인 (천이 인을 포함)	천의 뜻이 인에 선행	유교
空(공)	有(유)	공 = 유 의 본질 집합	공이 시간적 선행	불교
道(도)	名(명)	도 ⊃ 모든 개별 명	도가 명에 선행	노자

윤리학 핵심 대립쌍

윤리 이론	도덕의 위치 (공간)	도덕 판단의 시간	핵심 논쟁
공리주의	결과(경계 밖, 미래)	결과 발생 이후 판단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의무론(칸트)	행위 의지(경계 안)	결과와 무관, 사전 의무	도덕 법칙은 선형적
덕 윤리	행위자 내부 덕성	덕이 먼저, 행위는 결과	아리스토텔레스적 목적론
도덕 실재론	도덕적 사실은 경계 밖 객관 실재	발견(Discovery): 사실이 먼저	에이머와 대립
정서주의	도덕 판단은 경계 안 감정 표현	판단은 감정 반응, 진리값 없음	2025학년도 수능 핵심

미학 지문 심화 — 공간·시간 구조 적용

미학의 핵심 질문과 공간 구조

미학 지문의 핵심 질문은 항상 이것이다: “예술의 가치는 작품 경계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미학 이론	가치의 위치	경계 기준	대표 사상가
모방론	현실(경계 밖) — 얼마나 잘 모방했는가	현실 세계 > 예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표현론	작가 내면(경계 안) — 감정·정신의 표현	작가 정신 → 작품	낭만주의
형식주의	작품 형식(경계 안) — 선, 색, 구조 자체	작품 = 닫힌 집합	클라이브 벨
제도론	예술계 제도(경계 밖) — 인정받아야 예술	예술계 > 작품	조지 디키
아도르노	사회적 모순(경계 밖) 내재화	사회 ↔ 작품 교집합	아도르노 (2026 수능)

미학의 시간 구조 — 창작·작품·감상의 선후

단계	시간 순서	각 이론의 강조점
창작 의도	1st	표현론·의도주의 — 이것이 예술의 의미를 결정
작품 완성	2nd	형식주의 — 완성된 작품 자체만이 의미의 전부
사회적 수용	3rd	제도론·수용미학 — 감상과 인정 이후에야 예술

실전 적용 — 지문 독해 체크리스트

철학·윤리·미학 지문을 만났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번호	체크 항목	확인 방법
①	지문에 몇 개의 이론/사상가가 등장하는가?	이름, 이론명 표시
②	각 이론은 경계를 어디에 긋는가?	안/밖 표 작성
③	두 이론의 집합 관계는? (대립·포함·교차)	겹침 여부 판단
④	시간적 선후가 있는가? (A가 B에 선행하는가)	화살표 표시
⑤	동시 발생이 있는가? (상호 의존)	↔ 표시
⑥	문제에서 묻는 것은 공간(안/밖)인가, 시간(선후)인가?	문제 유형 분류
⑦	선지의 함정은 안/밖 혼동인가, 선후 혼동인가?	오답 패턴 확인

지문읽기연습_아도르노 미학 지문

(가)

도르노는 문화 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 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은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다. 그는 대중 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 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는 속성을 동일성으로, 하나의 가치 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을 비동일성으로 규정하고, 예술은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한다.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쇤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예술은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한다.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위 예술을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다.

(나)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예술은 사회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 낸다면,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 ㉡유리된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스일 수 있다. 미메시스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세잔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성의 사과가 아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를 재현한 것이 된다.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킴으로써,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한다. 결국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한편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즉 그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 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며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는 현실 속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박탈한다.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나민의 지적처럼,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대중 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듯이,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 예술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5.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화 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② 일정한 규격에 맞춰 생산될 뿐 아니라 대중의 감상 능력을 표준화한다.
- ③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 체계에 종속된 것으로서 예술로 포장된 상품에 불과하다.
- ④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은폐한다.
- ⑤ 문화 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개인들이 지닌 개성의 차이를 상실시킨다.

6.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정형적 형태뿐 아니라 정형적 형태 역시 재현되기 때문이다.
- ② 재현의 주체가 예술가로부터 예술 작품의 감상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 ③ 미적 체험의 대상이 사회의 부조리에서 세계의 본질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 ④ 미적 체험의 과정에서 비정형적인 형태가 예술가의 주관으로 왜곡되기 때문이다.
- ⑤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 작품에 나타난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7.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화는 애초에 예술과 무관하므로 예술의 동일화는 실현 불가능하다.
- ② 전위 예술의 속성은 부조리 그 자체를 폭로하는 것이므로 비동일성은 결국 동일성으로 귀결된다.
- ③ 동일성으로 환원된 대중 예술에서도 비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예술의 동일화는 무의미하다.
- ④ 전위 예술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하므로 전위 예술로의 동일화는 새로운 차원의 비동일성으로 전환된다.
- ⑤ 동일화를 거부하는 속성이 전위 예술의 본질이므로 전위 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화가 아니라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지문해설_아도르노 미학 지문

STEP 1. 사상가 레이블링

이 지문에는 세 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A = 아도르노 — (가) 전체의 주인공. 자신의 미학 이론을 전개합니다. **B = (나)의 비판자** — 아도르노를 긍정하다가 뒤집습니다. 미메시스를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C = 베냐민** — (나)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보조 논거. “우연히 찍힌 사진에서도 예술 정신이 있다”는 한 줄로 아도르노의 전위 예술 독점을 공격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B가 A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나)는 앞부분에서 아도르노를 칭찬하는 척하다가(“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곧바로 “하지만”으로 방향을 튼다. 수능 지문에서 이 패턴이 나오면 “칭찬 = 반박의 발판”임을 즉시 인식해야 합니다.

STEP 2. 공간 구조 — 경계의 안/밖

철학·미학 지문의 핵심 질문은 늘 같습니다. “예술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어디’가 바로 공간 구조입니다.

① 예술 가치의 위치

항목	아도르노 (A)	(나)의 비판 (B)
예술 가치의 근거	작품 밖 — 사회적 모순·부조리에 내재	작가 내면 → 작품 형식으로 구현
세잔의 작품	사회 본질과 유리된 아름다운 가상 → 예술 밖	주관적 세계관의 미메시스 → 예술 안
대중 예술	예술 집합 밖 — 상품, 동일화 기제	예술 집합 안 가능 — 저항 메시지 담을 수 있음
미메시스	부정 — 아름다운 가상은 사회 본질과의 단절	긍정 — 주관 재현이 예술의 본질

아도르노는 예술 가치의 근거를 **사회적 부조리의 내재화**에 둡니다. 즉 예술이 가치 있으려면 작품 안에 사회의 고통이 침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에서 세잔의 사과 그림은 그냥 “예쁜 그림”이 되고, 그래서 예술 밖으로 밀려납니다.

반면 (나)의 비판자는 세잔의 작품이 **작가의 주관적 세계관을 재현한 미메시스**라고 봅니다. 미메시스의 정의가 중요한데, 단순히 현실을 베끼는 게 아니라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세잔의 사과를 사과를 그린 게 아니라, 자연의 생명력·농부의 삶·예술가의 사유를 색채와 형태로 번역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잔은 사회 본질과 유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의 본질을 포착한 것이 됩니다.

② 동일성 vs. 비동일성 — 이 지문의 핵심 이항대립

항목	동일성	비동일성
정의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로 환원	환원을 거부
대표 사례	대중 예술, 자본주의 상품 논리	신베르크의 전위 예술, 불협화음
아도르노의 판단	비판·거부	옹호
역설 (Ⓛ)	아도르노 자신이 전위 예술 = 진정한 예술이라며 동일화를 저지름	—

이 표에서 Ⓛ이 왜 핵심 비판인지가 명확해집니다. 아도르노는 “하나로 환원하는 것이 폭력”이라고 비판하는데, 정작 자신은 전위 예술 하나만을 진정한 예술로 규정합니다. 세잔도 안 되고, 대중음악도 안 되고, 우연 사진도 안 됩니다. **동일화를 비판하면서 스스로 예술을 동일화하는 자기모순**입니다. Ⓛ은 이 역설을 정확히 짚은 것입니다.

③ 아도르노의 예술 경계 — 극도의 축소

구분	아도르노의 예술 집합	(나) 비판의 예술 집합
포함	전위 예술만 (비정형, 비동일성)	전위 예술 + 세잔 + 저항적 대중음악 + 우연 사진
배제	대중 예술, 미메시스, 아름다운 가상 전부	특정 기준으로 배제하지 않음
집합 크기	극도로 축소	확장

STEP 3. 시간 구조 — 창작·작품·감상의 선후

① 미학 이론별 강조 시점

시간 순서	단계	아도르노의 강조점	(나) 비판의 강조점
1st	창작 의도 (작가 내면)	중시하지 않음 — 작가 주관은 아름다운 가상을 낳을 뿐	핵심 — 미메시스는 작가 주관에서 출발
2nd	작품 완성 (형태·형식)	중시 — 단, 비정형성 자체가 중요	색채·형태가 주관을 구현하는 매개
3rd	감상 (체험)	핵심 — 감상자가 사회 부조리를 체험해야 예술	체험도 중요하지만 창작 주관이 선행

아도르노는 **감상의 시점**을 가장 중시합니다. 예술의 완성은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가 아니라, 감상자가 불쾌함·부조리를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신베르크의 불협화음이 감상자에게 불쾌함을 줄 때 비로소 동일화 저항이 실현된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나)의 미메시스 입장은 **창작 시점**을 더 중시합니다. 작가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포착했는가, 즉 **1st 단계**에서 이미 예술의 본질이 결정됩니다.

② 저항의 방식에서 드러나는 시간 구조

구분	직접적 저항 표현	아도르노가 높이 평가하는 방식
방식	계몽·저항 메시지를 명시적으로 작품에 담음	비동일성을 형태 자체로 구현, 메시지는 숨김
시간 논리	저항 의도(1st) → 작품(2nd) → 감상자 수용(3rd)	작품 형태 자체(2nd) → 감상자의 체험(3rd)이 핵심
아도르노의 판단	부정 —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는 폭력	긍정 — 쇤베르크가 그 모범

직접 저항을 표현하면 왜 안 될까요? 아도르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저항을 명시적으로 전달하려는 순간, 그 저항 메시지 자체가 하나의 고정된 의미 체계가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동일화입니다. 진정한 저항은 **형태의 비정형성 그 자체**여야 하고, 감상자가 그 불편함을 통해 스스로 체험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체험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STEP 4. ㉠·㉡ 핵심 문장 구조 분석

㉠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이것이 왜 성립하는지를 공간 구조로 추적하면 이렇습니다. 아도르노는 예술이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비정형성, 형태 자체의 비동일성**입니다. 여기서 작가의 주관적 인상을 재현하는 미메시스가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세잔의 사과가 아도르노에게 작가 주관의 아름다운 표현일 뿐, 사회 부조리의 체험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예술 집합 밖으로 밀려납니다. 즉 미메시스는 아도르노의 예술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이 ㉠의 의미입니다.

㉡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아도르노가 비판하는 동일성의 정의는 “**서로 다른 것을 하나로 환원**”입니다. 그런데 아도르노는 전위 예술 이외의 모든 예술을 예술 집합에서 배제합니다. 이것은 예술의 다양한 형태를 **전위 예술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환원**하는 행위입니다. 정확히 자신이 비판한 동일화의 논리 구조와 같습니다. ㉡은 이 자기모순을 공간 구조로 짚은 것입니다.

STEP 5. 수능 선지 함정 예측

이 지문에서 출제될 수 있는 함정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함정 유형	내용	대응 방법
안/밖 혼동	“아도르노는 예술 가치가 작품 내부 형식에 있다고 봤다”	아도르노는 작품 밖 — 사회적 부조리에 근거를 둠
미메시스 혼동	“아도르노는 미메시스를 예술의 핵심으로 봤다”	미메시스를 부정한 것은 아도르노 , 옹호한 것은 (나)
저항 방식 혼동	“아도르노는 저항 메시지를 명시적으로 담은 예술을 지지했다”	명시적 저항 = 비동일성의 동일화 → 아도르노는 부정
역설 미인식	“아도르노는 일관되게 동일화를 거부했다”	㉠ — 전위 예술 독점 자체가 동일화, 자기모순
베냐민 혼동	“베냐민은 작가 주관에 결여된 예술은 예술이 아니라고 봤다”	정반대 — 우연 사진에서도 예술 정신 발견 가능하다는 입장

한 줄 요약: 이 지문의 뼈대는 하나입니다. 아도르노는 예술의 경계를 전위 예술로만 축소하면서 동일화를 비판하다 스스로 동일화를 저질렀고, (나)는 그 경계를 미메시스와 대중 예술로 확장하며 반박합니다.

문제 풀이 및 해설

5번 ①

공간 구조로 접근합니다. 아도르노에게 대중 예술은 개인의 정체성을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기제**입니다. 즉 대중 예술과 상품화된 정체성은 **같은 편**, 동일한 집합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둘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 **공모 관계**입니다.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안/밖을 뒤집은 오답입니다.

정답 ①

6번 ⑤

㉠은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된다”입니다. 왜 부정되는지를 시간 구조로 추적합니다.

아도르노는 미적 체험의 핵심을 **감상 시점(3rd)**에 둡니다. 그런데 그 체험의 대상은 작품에 드러난 **형태의 비정형성 그 자체**입니다. 창작 시점(1st)에서 작가가 무엇을 주관적으로 포착했는지는 아도르노의 관심 밖입니다. 결국 **예술가의 주관은 가려지고** 형태 체험만 남습니다. 미메시스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확인하면, ③은 “미적 체험의 대상이 사회 부조리에서 세계 본질로 변화”라고 했는데 이는 아도르노가 아닌 **(나)의 주장**입니다. 공간 혼동 함정입니다.

정답 ⑤

7번 ⑤

㉡은 “(나)의 비판”입니다. “아도르노가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을 동일화하고 있다”는 공격입니다. 아도르노 입장에서 이것을 **반박**해야 합니다.

아도르노의 논리 구조를 공간 구조로 재확인합니다. 비동일성은 **동일화를 거부하는 속성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전위 예술을 추구한다는 것은 비동일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의상 동일화가 될 수 없습니다. “(나)가 동일화라고 비판하지만, 전위 예술의 본질 자체가 동일화 거부이므로 전위 예술을 지향하는 것은 비동일화”라는 반박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걸러냅니다. ④는 “전위 예술이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한다”고 했는데, 아도르노는 이 구분을 오히려 **명확히 유지**합니다. 지문의 근거가 없습니다. ②는 “비동일성이 결국 동일성으로 귀결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도르노의 입장이 아니라 **(나)의 비판을 더 강화**하는 말입니다.

정답 ⑤

지문읽기연습_육가의 사상과 세종과 편찬자들의 사상 지문

(가)

전국 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진(秦)은 분서갱유를 단행하며 사상 통제를 ㉠기도했다. 당시 권력자였던 이사(李斯)에게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고,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통합 학문의 틀을 보여 준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 이에 한(漢) 초기 사상가들의 과제는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하며, 힘의 지배를 ㉢승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에 부응한 대표적 사상가는 육가(陸賈)였다. 순자의 학문을 계승한 그는 한 고조의 치국 계책 요구에 부응해 『신어』를 저술하였다. 이 책을 통해 그는 진의 단명 원인을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으로 지적하고, 진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며 한 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이 중요함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그에게 지식의 핵심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이었다. 그는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문·지리·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는 ㉣통물(統物)과,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통변(通變)을 제시하였다. 통물과 통변이 정치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인의(仁義)라고 파악한 그는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안하며 인의의 실현을 위해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육가는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타 사상을 수용하였다.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위와 법가의 권세를 끌어들이었다. 그에게 무위는 형벌을 가버이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의 결과를 의미했고, 권세도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 정치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었기에 원래의 그것과는 차별된 것이었다. 육가의 사상은 과도한 융통성으로 사상적 정체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 천명이 결정됨을 지적하고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의 사상이었다. 그의 사상은 한 무제 이후 유교 독존의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였다.

(나)

조선 초기에 진행된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은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편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와 조선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고려보다 조선이 뛰어남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태조의 명으로 고려 말에 찬술되었던 자료들을 모아 고려에 관한 역사서가 편찬되었지만, 왕실이 아닌 편찬자의 주관에 ㉦개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태종은 고려의 역사서를 다시 만들라는 명을 내렸다. 이후 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실자는 주장과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추어 고쳐 쓰자는 주장이 맞서는 등 세종 때까지도 논란이 ㉧계속되었지만, 문종 대에 이르러 『고려사』 편찬이 완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은 경서(經書)가 학문의 근본이라면 역사서는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집현전 학자들과의 경연을 통해 경서와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쌓아 갔다. 이런 분위기에서 세종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담은 『치평요람』의 편찬을 명하였고, 집현전 학자들은 원(元)까지의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하였다. 정리 과정에서 주자학적 역사관이 담긴 『자치통감강목』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지만,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 또한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 간다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기존 역사서와 달리 국가 간 전쟁과 외교 문제, 국가 말기의 혼란과 새 국가 초기의 혼란 수습 등을 부각하였다. 이러한 편찬 방식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삼아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 이외에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전제된 것이었다. 이런 의도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곳은 『치평요람』의 「국조(國朝)」

부분이었다. 이 부분의 편찬자들은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며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드러냈고, 이를 통해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이성계의 능력과 업적을 담기는 했지만 이것이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기에는 불충분했기에 세종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부각한 『용비어천가』의 편찬을 지시했다. 이는 왕조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경전과 역사의 다양한 근거를 통해 보여 주고자 한 것이었다.

4. (가)와 (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두 글을 비교하며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한(漢)에서, (나)는 조선에서 쓰인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시대 상황과 사상이 책에 반영된 양상을 비교하며 읽는다.
- ② (가)는 피지배 계층을, (나)는 지배 계층을 대상으로 한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예상 독자의 반응 양상을 비교하며 읽는다.
- ③ (가)는 동일한 시대에, (나)는 서로 다른 시대에 쓰인 책들을 설명하고 있으니, 시대에 따른 창작 환경을 비교하며 읽는다.
- ④ (가)는 학문적 성격의, (나)는 실용적 성격의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다양한 분야의 책에 담긴 보편성을 확인하며 읽는다.
- ⑤ (가)는 국가 주도로, (나)는 개인 주도로 편찬된 책들을 설명하고 있으니, 각 주제별 관심 분야의 차이를 확인하며 읽는다.

5. (가),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진의 권력자인 이사는 역사 지식과 학문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 ② 전국 시대에는 『순자』 처럼 여러 사상을 통합하려는 학문 경향이 있었다.
- ③ 『치평요람』은 『자치통감강목』의 편찬 형식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 ④ 『치평요람』의 「국조」는 고려의 문제점들을 보임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을 드러내었다.
- ⑤ 『용비어천가』에는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드러내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6.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역사 속에서 각광을 받았던 학문 분야들의 개별적 특징을 이해한 것이다.
- ② ㉡은 도가나 법가 사상을 중심 이념으로 삼아 정치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 ③ ㉡은 현명한 신하의 임용과 엄한 형벌의 집행을 전제로 한 평온한 정치의 결과를 의미한다.
- ④ ㉡은 군주가 부단한 수양과 안정된 권력을 바탕으로 교화의 정치를 펼쳐야 실현되는 것이다.
- ⑤ ㉠과 ㉡은 역사 지식과 현실 정치를 긴밀히 연결하여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7. 밑글에서 ‘육가’와 ‘집현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옛 국가의 역사를 거울삼아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도록 한다.
- ㄴ. 옛 국가의 멸망 원인은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지 않고 새 국가로 천명이 옮겨 온 것에 있다.
- ㄷ. 옛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새 국가의 군주는 유교에 따라 통치하도록 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8. 보기는 동양 역사가들의 견해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ㄱ. 대부분 옛일의 성패를 논하기 좋아하고 그 일의 진위를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 하지만 진위를 분명히 한 후에야 성패가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한다는 뜻이다.

ㄴ. 고금의 흥망은 현실의 객관적 형세인 시세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며, 사림(士林)의 재주와 덕행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천하의 일은 시세가 제일 중요하고, 행복과 불행이 다음이며, 옳고 그름의 구분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다.

ㄷ. 도(道)의 본체는 경서에 있지만 그것의 큰 쓰임은 역사서에 담겨 있다. 역사란 선을 높이고 악을 낮추며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다.

- ① ㄱ의 관점에 따르면, 『신어』에 제시된 진의 멸망 원인에 대한 지적은 관련 내용의 진위에 대한 명확한 판별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겠군.
- ② ㄱ의 관점에 따르면, 『고려사』 편찬 과정에서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고 한 의견은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하자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ㄴ의 관점에 따르면, 『치평요람』에 서술된 국가의 흥망은 그 원인이 인물들의 능력보다는 객관적 형세인 시세의 흐름에 있다고 보아야겠군.
- ④ ㄷ의 관점에 따르면, 『신어』에 제시된 진에 대한 비판은 악을 낮추고 징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ㄷ의 관점에 따르면, 『치평요람』 편찬과 관련한 세종의 생각에서 학문의 근본은 도의 본체에, 현실에서 학문의 구현은 도의 큰 쓰임에 대응하겠군.

지문해설_육가의 사상과 세종과 편찬자들의 사상 지문

STEP 1. 사상가/화제 레이블링

레이블	대상	역할
A	이사(李斯) / 진(秦)	사상 통제, 힘의 지배 — 반면교사
B	육가(陸賈)	(가)의 주인공 — 통합 사상 제시
C	세종 / 집현전	(나)의 주인공 — 역사서 편찬
D	『치평요람』·『고려사』 ·『용비어천가』	C의 사상이 실현된 구체적 산물

(가)와 (나)는 표면상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역사 지식을 어떻게 현실 정치에 연결하는가” 라는 동일한 화제를 공유합니다. 이것이 두 지문을 묶는 핵심입니다.

STEP 2. 공간 구조 — 경계의 안/밖

① (가) 핵심 대립: 힘의 지배 vs. 인의(仁義)의 지배

항목	진(秦) / 이사	육가(陸賈)
역사 지식의 위치	예술 집합 밖 — 허언, 논란의 원인	정치 집합 안 — 현실 정치의 핵심 도구
권력의 근거	힘·법·형벌 — 내부 강제력	인의·교화 — 외부 정당성
사상의 경계	하나의 사상만 허용 (분서갱유)	유교 중심 + 도가·법가 흡수
통치 방식	법률 단독	유교·도가·법가 통합

육가의 공간 구조는 명확합니다. 유교가 경계를 설정하는 큰 집합이고, 그 안에 도가의 무위와 법가의 권세를 끌어들이는 구조입니다. 단, 원래 의미 그대로가 아니라 유교적으로 재해석된 형태로만 포함됩니다. 도가의 무위는 “군주 수양과 형벌 완화”로, 법가의 권세는 “현명한 신하 임용”으로 변형됩니다. 경계 안으로 들어오려면 유교라는 필터를 통과해야 합니다.

② (가) 핵심 개념 3개의 공간 관계

개념	위치	의미
통물(㉠)	가장 넓은 집합	천문·지리·인사 등 천하 모든 것을 포괄 — 공간적 전체
통변(㉡)	시간 축의 통찰	역사 변화 과정에서 상황에 맞는 조치 — 시간적 유연성
인의(㉢)	통물·통변이 정치에서 드러나는 결과	통물+통변 → 인의 (두 개념의 교집합이 현실 정치에서 인의로 발현)

통물과 통변은 각각 공간 구조와 시간 구조에 대응합니다. 통물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공간적 개념이고, 통변은 “역사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라는 시간적 개념입니다. 이 둘이 정치 세계에서 만날 때 인의가 됩니다.

③ (나) 핵심 대립: 고려 vs. 조선

항목	고려	조선
사상적 기반	불교	유교
정통성 위치	천명 상실 — 혼란·쇠망	천명 획득 — 새 국가 수립
역사서 편찬 목적	반면교사 — 폐단 드러내기	정당성 확보 — 우수성·정통성 부각

(나)의 공간 구조는 정통 vs. 비정통의 경계 설정입니다. 『치평요람』은 『자치통감강목』의 주자학적 역사관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비정통으로 분류합니다. 고려는 불교적 폐단으로 정통성을 잃었고, 조선은 유교적 기반으로 천명을 받은 정통 국가라는 구도입니다.

④ (가)와 (나)의 공통 공간 구조

항목	육가 (가)	세종 (나)
역사 지식의 위치	현실 정치 집합 안 — 통치의 핵심 도구	현실 정치 집합 안 — 경서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수단
타 사상과의 관계	유교 중심으로 도가·법가 흡수	주자학 중심으로 역사서 편찬 방식 조정
역사의 기능	진의 실패를 거울삼아 한의 통치 정당화	고려의 실패를 거울삼아 조선 건국 정당화

두 지문의 공간 구조가 **평행**합니다. 육가가 진의 실패를 분석해 한의 정당성을 구축했듯이, 세종은 고려의 실패를 정리해 조선의 정당성을 구축합니다.

STEP 3. 시간 구조 — 선후 관계

① (가) 시간 흐름

시간 순서	사건	의미
1st	진의 통일·분서갱유	사상 통제 — 역사 지식 배제
2nd	진의 단명·멸망	힘의 지배의 실패 증명
3rd	한 초기 — 육가 등장	진 실패 원인 분석 + 대안 제시
4th	『신어』 저술	통물·통변·인어의 체계화
5th	한 무제 이후 유교 독존	육가 사상의 결실

핵심 시간 논리: 실패(진) → 분석 → 대안 제시(육가) → 체계화 입니다. 육가의 사상은 진의 멸망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선행 조건으로 삼습니다. 역사가 먼저이고 이론이 나중입니다.

② (나) 시간 흐름

시간 순서	사건	의미
1st	태조 — 첫 역사서 편찬	주관 개입 비판 → 실패
2nd	태종 — 재편찬 명령	논란 지속
3rd	세종 — 경연, 집현전	역사 인식 체계화
4th	『치평요람』 편찬	중국·고려 역사 정리, 정통/비정통 구분
5th	『용비어천가』 편찬	조선 정통성 완성
6th	문종 — 『고려사』 완성	고려 역사 정리 마무리

(나)의 시간 구조는 점진적 완성입니다. 태조의 미완 → 태종의 재시도 → 세종의 체계화 → 문종의 완성이라는 누적적 선후 관계입니다.

③ (가)·(나) 공통 시간 논리

항목	(가) 육가	(나) 세종
역사 인식의 시간 방향	과거(진의 실패) → 현재(한의 통치)	과거(고려의 실패) → 현재(조선의 정당성)
역사 지식의 기능	과거를 거울삼아 현재 통치에 적용	과거를 거울삼아 현재 왕조 정당화
통변(㉠)과의 연결	역사 변화에 따라 상황에 맞는 조치	강목체 형식은 따르지 않고 내용은 수용 — 형식적 통변

STEP 4. 수능 선지 함정 예측

함정 유형	내용	대응
개념 혼동	통물과 통변을 바꿔 설명	통물=공간적 포괄, 통변=시간적 유연성
흡수 방식 혼동	육가가 도가·법가를 원래 의미 그대로 수용	유교적으로 재해석하여 수용, 원래 의미와 다름
편찬 형식 혼동	『치평요람』이 강목체 형식을 따름	주자학적 역사관(내용)은 수용, 강목체 형식은 불채택
목적 혼동	『치평요람』이 순수하게 역사 기록을 위한 것	새 국가 토대 마련이라는 정치적 의도 전제
(가)·(나) 관계 혼동	두 지문이 서로 다른 화제	공통 화제: 역사 지식의 현실 정치 활용

한 줄 요약: (가)의 육가와 (나)의 세종은 모두 과거의 실패(진·고려)를 거울삼아 현재 왕조(한·조선)의 정당성을 역사 지식으로 구축한다는 동일한 공간·시간 구조 위에 서 있습니다.

문제 풀이 및 해설

4번 ①

(가)와 (나)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공간 구조 분석에서 정리했듯이, 두 지문의 **공통 화제는 “역사 지식의 현실 정치 활용”**입니다. 차이점은 배경입니다. (가)는 한(漢)이라는 중국 왕조에서 육가가 『신어』를 통해 유교·도가·법가를 통합한 사상을 제시했고, (나)는 조선에서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치평요람』·『고려사』·『용비어천가』를 편찬했습니다. 시대 상황(진의 멸망 / 고려의 멸망)이 각각의 사상과 편찬 방향에 반영된 양상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나머지를 걸러내면, ②는 (가)의 『신어』가 한 고조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피지배 계층이 아닙니다. ③은 (나)에 등장하는 역사서들이 서로 다른 시대가 아니라 조선 초기라는 동일한 시대에 편찬됩니다. ④·⑤는 지문 근거가 없습니다.

정답 ①

5번 ③

선지별로 공간·시간 구조와 대조합니다.

③이 핵심입니다. 지문에서 『치평요람』은 “주자학적 역사관이 담긴 『자치통감강목』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지만,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고 명시합니다. 즉 역사관(내용)은 수용했지만 형식은 다릅니다. 선지 ③은 “『자치통감강목』의 **편찬 형식에 따라**”라고 했으므로 안/밖 혼동 함정입니다. 내용과 형식을 뒤집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지문과 일치합니다. ①은 이사가 역사 지식을 “허언”, 학문을 “논란의 원인”으로 본 것과 일치하고, ②는 『순자』가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한 전국 시대 분위기와 일치하며, ④·⑤도 지문의 내용과 정확히 대응합니다.

정답 ③

6번 ④

㉠통물, ㉡통변, ㉢인의의 공간·시간 구조를 적용합니다.

통물은 천하 모든 것을 포괄하는 공간적 개념, 통변은 역사 변화에 따른 시간적 유연성, 인의는 이 둘이 정치에서 드러난 결과입니다. 인의가 실현되려면 육가가 제시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유교 중심의 교화, 도가적 무위(군주 수양 + 형벌 완화), 법가적 권세(현명한 신하 임용)입니다. ④는 “군주의 부단한 수양(무위에서 도출)과 안정된 권력(권세에서 도출)을 바탕으로 교화의 정치(유교)를 펼쳐야 실현된다”고 했으므로, 세 요소를 정확히 조합한 선지입니다.

나머지를 걸러냅니다. ①은 통물이 “개별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라 했는데, 통물은 개별이 아니라 **포괄**입니다. ②는 통변이 도가·법가를 **중심 이념**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중심은 어디까지나 유교입니다. ③은 인의가 “엄한 형벌의 집행을 전제”한다고 했는데, 육가는 오히려 형벌을 **가벼이 하는 것**을 무위

의 의미로 봤습니다. ⑤는 통물·통변이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것이라 했는데,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은 긍정하되 유지와 확장은 왕도 정치로 해야 한다는 것이 육가의 입장입니다.

정답 ④

7번 ① ㄱ만 정답

정답이 ①(ㄱ만)임을 전제로, ㄴ과 ㄷ이 왜 틀렸는지를 정확히 해설합니다.

ㄱ은 맞습니다. 육가는 진의 실패를 분석해 한의 통치 방안을 제시했고, 집현전 학자들은 고려의 실패를 정리해 조선의 안정적 통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 다 과거를 거울삼아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한다는 공통 구조입니다.

ㄴ이 틀린 이유. ㄴ은 “멸망 원인이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지 않고 천명이 옮겨 온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지문 모두 정반대입니다. 육가는 진의 멸망을 가혹한 형벌, 법률 의존, 군주의 교만, 잘못된 인재 등용이라는 **정치 운영의 실패**로 지목했습니다. 집현전 학자들도 『치평요람』에서 **올바른 정치 여부에 따라 천명이 옮겨 간다고** 서술했습니다. 즉 천명이 먼저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잘못해서 천명을 잃는 것입니다. 인과 관계의 선후가 ㄴ과 반대입니다.

ㄷ이 틀린 이유. ㄷ은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공백이란 특정 사상이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진은 사상 통제를 했을 뿐 유교 자체가 소멸하거나 공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고려도 불교가 지배적이었지 유교가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육가와 집현전 학자들이 한 것은 공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유교 이념을 **중심 이념으로 격상하고 현실 정치와 결합**시킨 것입니다. 공백의 채움이 아니라 **중심의 재편**입니다. 이 차이가 ㄷ을 틀리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정답 ①

8번 ②

보기의 역사가 견해를 지문에 대응시키는 문제입니다.

ㄱ의 핵심은 “**진위를 분명히 한 후에야 성패 판단이 가능하다**”, 즉 자료의 정확성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②는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는 의견이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하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문을 보면 『고려사』 편찬 논쟁에서 두 입장이 맞섰습니다. “고려의 용어를 **그대로 실자**는 주장”과 “유교적 명분에 맞추어 **고쳐 쓰자**는 주장”입니다. ㄱ의 관점에서 자료의 진위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원래 기록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ㄱ의 관점에 가까운 것은 오히려 **그대로 실자는 주장**입니다. 고쳐 쓰는 것은 유교적 명분이라는 외부 기준으로 자료를 변형하는 것이므로, ㄱ이 강조한 진위 확인과는 오히려 반대 방향입니다.

정답 ②

지문읽기연습_헤겔의 미학과 비판

(가)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 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 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 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 역을 ㉢가리킨다.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 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 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 학에서 종합된다.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 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 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 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나)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 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 지 않을 것이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표상-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 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 화·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 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관 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 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적용하여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5. (가)에서 알 수 있는 헤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술·종교·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 ②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 ③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④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 ⑤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6. (가)에 따라 직관·표상·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②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은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③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④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7.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과 ㉡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 ② ㉠과 ㉡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 ③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 ④ ㉡과 달리 ㉠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 ⑤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8.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헤겔 :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나)의 글쓴이 :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은 말이 됩니다.

- ①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 ②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 ③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④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 ⑤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

지문해설_헤겔의 미학과 비판

STEP 1. 사상가/화제 레이블링

레이블	대상	역할
A	헤겔	(가)의 주인공 — 변증법적 미학 체계 제시
B	(나)의 비판자	헤겔의 변증법이 실제로는 자기 원칙을 위반했다고 공격

이 지문은 아도르노 지문과 구조가 동일합니다. (가)에서 이론을 소개하고, (나)에서 그 이론이 **자기 원칙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비판합니다. (나)의 비판자는 헤겔을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헤겔 자신의 변증법 원칙을 근거로** 헤겔을 공격합니다. 이 점이 핵심입니다.

STEP 2. 공간 구조 — 경계의 안/밖

① 절대정신의 세 형태 — 지성 형식과 대응 관계

형태	지성 형식	공간 특성	단계
예술	직관	외면성·객관성 —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	초보
종교	표상	내면성·주관성 — 심상을 내면에서 떠올림	성장
철학	사유	순수 논리적 — 개념으로 대상 파악	완숙

헤겔의 공간 구조는 **직관(외면) → 표상(내면) → 사유(순수 논리)**라는 방향으로 외면성이 지워지고 내면성이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성적**이기 때문에, 가장 논리적인 지성인 사유를 형식으로 하는 철학이 최고 단계가 됩니다.

② (나)의 비판 — 진정한 종합인가?

항목	헤겔의 주장	(나)의 비판
직관→사유의 과정	외면성과 내면성의 변증법적 종합	외면성이 점차 소거되고 내면성만 강화 — 종합이 아닌 일방적 승리
예술→철학의 과정	객관성과 주관성의 변증법적 종합	객관성(감각적 지각성)이 완전히 소거 — 중화도 종합도 아닌 소멸
철학에서의 종합	직관의 외면성 + 표상의 내면성 = 사유에서 종합	감각적 지각성이 종합 단계에서 완전히 사라짐 — 변증법 원칙 위반

(나)의 핵심 공격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이라면 **정립(예술·직관)의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지 않고 고양된 형태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헤겔의 철학(사유) 단계에서 예술의 핵심인 감각적 지각성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것은 종합이 아니라 반정립(내면성·주관성)의 **일방적 승리**입니다.

③ ㉠과 ㉡의 공간·시간 구조 대응

기호	내용	공간 구조	시간 구조
㉠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 구조	두 집합이 교집합 없이 대립 → 상위 집합으로 통합	정립 → 반정립 → 종합의 순서
㉡ 예술-종교-철학	절대정신의 세 형태	예술(객관) ↔ 종교(주관) → 철학(종합?)	초보 → 성장 → 완숙의 단계적 진행

㉠과 ㉡이 대응하는 구조입니다. ㉡이 ㉠의 변증법 논리를 따른다는 것이 헤겔의 주장이고, ㉡이 실제로는 ㉠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비판입니다.

STEP 3. 시간 구조 — 선후 관계

① 헤겔이 설계한 시간 구조

시간 순서	단계	의미
1st	예술(직관)	인류 지성 미발달 시대 — 감각적 방식으로 절대 진리 인식
2nd	종교(표상)	내면적 심상으로 절대 진리 인식
3rd	철학(사유)	순수 논리·개념으로 절대 진리를 완전하게 인식

중요한 것은 이 순서가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헤겔에게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하는 시대는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됩니다. 즉 철학의 시대가 되면 예술은 절대정신으로서의 역할을 **잃습니다**. 시간 구조상 예술은 과거에, 철학은 현재·완성에 위치합니다.

② (나)가 제안하는 수정된 시간 구조

시간 순서	헤겔의 구조	(나)의 제안
1st	예술(정립)	예술(정립)
2nd	종교(반정립)	종교(반정립)
3rd	철학(종합)	철학(종합)
4th	없음	예술 재등장 — 완전한 주관성의 재객관화

(나)의 비판자는 변증법 원칙에 충실하려면 **철학 이후에 예술이 다시 등장하는 4단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철학에서 완성된 주관성(사유)이 다시 객관화되는 단계가 있어야 진정한 종합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이 사유를 매개로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STEP 4. 핵심 대립 총정리

항목	헤겔 (A)	(나)의 비판 (B)
변증법 완수 여부	예술→철학이 변증법적 종합을 완수	감각적 지각성 소거 — 종합이 아닌 소멸
예술의 위치	과거의 초보 단계 — 철학에 종속	철학 이후 재객관화 단계의 유력 후보
종합의 성격	사유에서 외면성+내면성 종합	내면성의 일방적 승리 — 외면성(감각적 지각성) 완전 소거
방법과 체계의 관계	일치	불일치 — 변증법 방법을 체계에서 위반

STEP 5. 수능 선지 함정 예측

함정 유형	내용	대응
종합 개념 혼동	“종합은 두 범주 중 하나가 승리하는 것”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으로 보존·고양되는 것
예술의 위치 혼동	“헤겔은 예술이 철학과 동등한 단계라고 봤다”	헤겔에게 예술은 초보 단계, 철학이 완숙 단계
비판 방향 혼동	“(나)는 헤겔의 변증법 자체를 부정한다”	(나)는 변증법을 긍정하면서 헤겔이 자기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판
소거 vs. 종합 혼동	“철학에서 예술의 요소가 종합됐다”	감각적 지각성은 종합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거됨
4단계 제안 혼동	“(나)는 종교를 불필요하다고 봤다”	(나)는 기존 3단계를 인정하되 4단계 추가를 주장

한 줄 요약: 헤겔은 예술→종교→철학을 변증법적 종합이라고 주장했지만, (나)는 철학 단계에서 예술의 핵심인 감각적 지각성이 완전히 소거되므로 이것은 종합이 아니라 내면성의 일방적 승리라고 비판하며, 진정한 변증법 완수를 위해 철학 이후 예술의 재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문제 풀이 및 해설

4번 ①

(가)와 (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찾습니다.

(가)는 헤겔의 변증법이라는 특정 철학적 방법을 바탕으로 예술→종교→철학의 단계적 위상을 제시합니다. (나)도 변증법이라는 동일한 방법을 기준으로 삼아, 그 방법에 비추었을 때 예술이 철학 이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두 지문 모두 변증법이라는 철학적 방법 위에서 예술의 위상을 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를 걸러냅니다. ②는 “(나)가 변증법에 상반된 평가를 내린다”고 했는데, (나)는 변증법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증법을 더 충실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③은 “(나)가 혁신적 방법을 제안한다”고 했는데, (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헤겔 자신의 방법을 더 일관되게 적용하라고 요구합니다. ④는 예술 장르의 범주적 유형화는 지문에 없습니다. ⑤는 (가)가 철학사를 통시적으로 설명한다고 했는데, (가)는 철학사 서술이 아니라 헤겔의 체계를 공식적으로 설명합니다.

정답 ①

5번 ③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라는 선지입니다.

공간 구조 분석표를 보면, 직관·표상·사유는 **인식하는 형식**이고, 예술·종교·철학은 그 형식을 **사용하는 주체(절대정신의 형태)**입니다. 즉 직관이 예술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예술이 직관이라는 형식을 **사용**해서 절대적 진리를 인식합니다. 지성의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은 절대정신의 세 형태가 아니라 **절대적 진리(이념)**입니다. 대상과 주체를 뒤집은 함정입니다.

정답 ③

6번 ④

개념 정의를 다시 확인합니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 표상은 **물질적 대상 없이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것**, 사유는 **개념을 통해 대상을 파악하는 순수 논리적 지성**입니다.

④를 보면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이라고 했습니다. 기획은 물질적 대상을 눈앞에 두고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념적 구상이므로 사유이거나, 내면에서 심상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표상입니다. 물질적 대상을 실제로 감각하는 직관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모두 맞습니다. ①은 별을 바라봄(직관) / 고향 하늘 상기(표상), ②는 상상·회상 모두 내면 심상이므로 표상, ③은 그림 보기(직관) / 이론 분석(사유), ⑤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기준을 제시하는 것 모두 사유입니다.

정답 ④

7번 ③

(나)의 관점에서 ㉠(정립-반정립-종합)과 ㉡(예술-종교-철학)을 비교합니다.

③은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나)의 핵심 비판을 정확히 떠올립니다. ㉡에서 예술→종교→철학으로 갈수록 예술의 특성인 외면성·객관성·감각적 지각성은 갈수록 **약해지고 소거**됩니다. 강해지는 것은 내면성·주관성입니다. 첫 번째 범주(예술)의 특성이 강해진다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립의 특성이 종합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이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을 소거한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므로, ③은 내용 자체가 틀렸습니다.

나머지를 확인합니다. ①은 정립과 반정립이 대립한다는 것, 예술과 종교가 외면/내면으로 대립한다는 것 — 둘 다 맞습니다. ②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 수준 차이가 있다는 것 — 변증법에서 종합이 반정립보다 고양되고, 철학이 종교보다 완숙하다는 것 — 맞습니다. ④는 ㉠에서만 진정한 종합이 이루어진다는 것 — (나)는 ㉡에서 종합이 실패했다고 비판하므로 맞습니다. ⑤는 ㉠에서만 수렴적 방향성이 드러난다는 것 — ㉡은 일방적 방향성이므로 맞습니다.

정답 ③

8번 ②

가상 대화의 구조를 먼저 파악합니다. 헤겔이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괴테·실러가 완숙기에 이르러 **지적 통찰을 예술미로 승화**시켰고, 초기 작품은 지적으로 미성숙했기에 예술적으로도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헤겔의 이론 구조와 연결하면 어떤 말이 되는지가 ㉡의 핵심입니다. (나)의 글쓰이는 헤겔의 기본 논증 방법인 변증법을 기준으로 이 발언의 모순을 지적해야 합니다.

헤겔의 이론에서 예술은 **직관(외면성·객관성)**을 형식으로 하고, 철학(사유·내면성)은 더 높은 단계입니다. 그런데 헤겔 자신이 방금 말한 것은, 최고의 예술 작품은 **지적 통찰(사유·내면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론에서는 예술이 외면성을 본질로 하는 낮은 단계라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최고의 예술이 내면성(사유)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의 예술(외면성)과 현실의 예술(내면성 기반)이 불일치합니다.

이것이 정확히 ②입니다.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나머지를 걸러냅니다. ①은 “세 번째 단계가 범주들을 중화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나)의 기존 비판 내용이고 헤겔의 발언에서 새로 도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③은 예술이 반정립→정립으로 이동한다는 것인데 근거가 없습니다. ④는 예술의 객관성이 사라진다는 것인데, 헤겔의 발언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⑤는 예술이 진리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인데, 오히려 헤겔은 완숙기 예술이 최고의 통찰을 구현한다고 말했으므로 반대입니다.

정답 ②